

목양 칼럼

새 바람

우리 총회(KPCA) 일본노회 소속 여성 선교사 네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관광 중에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맨하탄, 그리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워싱턴 D.C.와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은 펜실베이니아 랜캐스터의 밀레니엄 극장 뮤지컬 '모세' 관람과 성막 견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한 분의 선교사님이 간증설교를 하였고, 또 이번주 수요일 저녁예배에도 한 분이 간증 설교를 하실 예정입니다.

일본노회 소속 한국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청년 시절에 일본으로 유학가서 캠퍼스에서 예수님을 만나 헌신한 분들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하지 않던 분들, 또는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왔다 갔다만 했던 분들이 헌신자가 되어서 일본 선교를 위해 귀하게 헌신하고 계십니다.

일본은 미신과 불교가 강한 나라여서 복음 전파가 매우 어려운 나라입니다. 일본은 현재 1억 2천만의 인구 중에 기독교인의 수가 가톨릭을 포함해서 1%가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개신교 신자 수는 0.1% 미만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신사참배가 종교가 아니라 국민의례라고 가르쳐서 어려서부터 자기 종교에 관계없이 신사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불교 사원에 온 가족이 등록되어 죽을 때는 바로 절에 연락이 되어 49제를 비롯해서 1주기, 3주기, 7주기 등 몇 세대까지 계속 고인을 위해 스님을 모시고 예식을 치르게 한다고 합니다. 죽을 때도 많은 재산을 절에 기증하게 하므로 사회 구조적으로 신사나 불교를 떠나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보수적인 일본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조상을 버리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전도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제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우리 총회 일본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강철을 뚫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볼 수 있었던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일본 유학을 선택한 분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세상적인 출세의 길을 포기하고 일본 선교를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헌신한 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캠퍼스에 나가 전도를 합니다. 도시락을 싸 들고 가서 만나는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복음을 전합니다.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한국에서 파송 받은 것도 아니고 한국에 계시실 때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도 아니어서 후원교회 연결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본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다.

특히 자매 선교사님들이 형제 선교사님들보다 전도를 더 잘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택과 교회가 같이 있어 주일 식사준비는 물론 교회의 온갖 뒷일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 선교사님들은 남편 선교사님과 자녀 양육, 그리고 심지어 독신 여성 선교사님들까지 보살피는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여성 선교사님들에게 심과 재충전의 힐링 캠프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가 남편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라도 물으니 자신들이 못하는 일을 뉴욕에일교회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간증 설교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의 원색적인 본질을 다시 한번 듣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 마음쓰고 상처를 받고 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새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라도 일본 선교에 동참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후 1:00	
	영어 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8: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요일-토요일)	본당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셋째 금요일)	각 목장별로	
제자훈련	각 동반자별로	각 동반자별로	
주일학교	영아유치부 (5세 이하)	오전 11:00	유치부 예배실
	유년부 (1-6학년)	오전 11:00	유년부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모임 오후 07:30 (금요일)	중고등부 예배실
Silver Club	목요일 오전 10:00- 오후 2:00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에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00-12:00	교육관	

예수님이 제일이신 교회



VISION 2023 DISCIPLESHIP MARCH

뉴욕에일장로교회

표어: 예수님 제일
(마 16:16)



- 영감있는 예배
- 십자가 사랑의 교제
- 땅끝까지 복음전파
- 천국일꾼 훈련양성
- 이민가정의 치료
- 능력있는 기도 생활

담임목사 김중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Fax. (516)938-3824
<https://YaleChurch.org>

주일예배

제 32권 16호 주후 2023년 4월 16일

예배 시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도자	홍정자목사	우영주목사	백에스라목사
예배의부름	인도자 (요 4:24)		
예배 기원	인도자		
신앙고백	다같이 (사도신경)		
찬송	405장		
기도	최병철집사	전용수장로	이찬용장로
성경봉독	시(Ps.) 27:1-14		
찬양	글로리아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김중훈목사		
찬송	370장		
봉헌	630장		
예일 소식	인도자		
찬송*	635장		
합심기도*	다같이 (감사/결단/축복)		
파송의말씀	인도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축도*	김중훈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수요예배 4월 19일 오후 8:30

- 기도: 정경자권사
- 말씀: 서윤미선교사
- 다음주 기도: 2선교회 헌신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5:30

- 말씀: 김중훈목사

다음 주일 기도

- 1부: 박제진집사
- 2부: 김근태장로
- 3부: 박경구장로

4월 안내위원

- 1부: 예배부
- 2부: 최영희 권사
- 3부: 홍성민 집사, 홍영 집사

예배 및 헌금 안내

- 모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 **수요예배 간증:** 서윤미 선교사 (일본)
- 교회 내 마스크 착용 및 성도간의 악수는 자물에 맡깁니다.
 - * 예배 전 헌금함에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교회 못 오시는 분은 우편 혹은 Venmo 이용
Address: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11801).
Pay to order: Yale Church or Yale Presbyterian Church.
Venmo: venmo@YaleKM, CCM Venmo는 @YaleCCM입니다.
- **일본 선교사 방문:** 이영미(고베), 조인경(요코하마), 이정숙(시즈오카), 서윤미(나가사키)
- **사랑선교회 월례회 및 목장모임:** 4월 16일(오늘) 식사 후, 친교실
- **물뎀동산 월례회 및 목장모임:** 4월 16일(오늘) 식사 후, CCM실
- **4월 목장예배:** 4/21(금), 오후 8시 30분, 각 목장별로
 - * 4/19 수요예배 후 마을지기, 목자, 총무모임 및 목장교안 배부
- **제52기 새가족만남:** 4/20-5/5 (첫 모임 후,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Zoom과 교회)
- **봄맞이 대청소:** 4월 29일(토)
- **유아세례 신청:** 어린이주일 (5/7)에 유아세례를 원하는 가정은 부목사실로 신청
- **창립 30주년 기념 메시아 찬양제 연습:** 점심 식사 후 연합으로
-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회:**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사랑방)
 - * 1부: 김송기 전도사 (7:50-8:20) 2부: 김민 목사 (9:10-9:40) 3부: 홍정자 목사(10:15-10:45)
- **강단 꽃 장식 및 사랑의 식탁**
 - 강단 꽃: 한규만집사&한진영권사 (결혼기념)
- **식사기도 담당자 및 식당봉사**
 - 식사기도: 이번주: 김준택장로 다음주: 한기하장로
 - 식당봉사: 이번주: 6마을 다음주: 7마을
- **동시통역:** Live English interpretation for sermon is available (11am Service).
Zoom QR Code for Sermon Translation



부활 승리합시다(고전 15:50-58)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불린다. 오늘 본문은 부활장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

1. 예수 재림과 함께 성도가 누릴 영광

- 1) 혈과 육, 그리고 썩는 것은 썩지 않을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 2)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가 순식간에 홀연히 변하며, 살아 있는 자도 변화된다. 이것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은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되는 것이다. 사망이 생명에 삼킴을 당하는 것이다.
- 3) 승리의 노래(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
- 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57절). 예수 부활 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죄의 권세를 꺾으셨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사 41:10).

2. 예수 부활은 현재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다(58절).

- 1)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꾸 죽고싶다고 말할 하는 습관을 이제 버리자. 이것은 죽어서 해결하려는 불신앙의 모습이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부활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환한 얼굴로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라고 말하는 분들의 모습을 본다. 부활이 죽음을 삼킨 현장이다.
- 2)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들이다. 우리는 작지 않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믿음의 주역들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결론]

"It's Friday. Sunday is coming" (S.M. Lockridge).

금요일은 실패, 수치, 고통, 배반의 상징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썬데이는 부활, 생명, 승리, 영광, 회복과 치유의 상징이다. 이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자. 반드시 '썬데이'가 올 것이다.

교우동정

- 한국 방문 이윤재집사&권병숙권사, 이성수 집사

행사예고

- 04/26(수) 2선교회 헌신예배
박재우 선교사 파송예배
- 05/03(수) 임직자 헌신예배
- 05/07(주일) 어린이주일, 유아세례, 정기당회

방송설교

- KRB FM 87.7 (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 Cablevision Ch. 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6:30-7:00) CTS
-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TS